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하루를 허락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루를 시작할수 있도록 해주신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이 시간들이 하나님앞에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의미있고 가치있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운데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충성할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주의힘과 능력과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우리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사랑과 친절로 보살필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고 항상 기쁨으로 그들을 섬길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서 58장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12절입니다. 12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2.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예 우선 공과의 제목을 좀 고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을 재건한 느헤미야라고 되어있는데요, 잘못된 제목입니다.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아입니다.

성벽은 에스라서에서 재건이 됐지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아서에서는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사건이 기록되어있습니다. 바로잡아주시길바랍니다. 어쩌다가 이런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저희들이 이사야서 58장 12절을 읽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오늘 공부할 느헤미아 사건입니다.

그리고 방금 내게서 날 자들이, 그 내게서, 그 후손중에 후대의 사람 중에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기초 무너진 데, 무너진 길을 다시 세울것 이라는 이 내용의 대표적인 주인공이 오늘의 느헤미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아서를 통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자.

무너진 길을 다시 수축하는자, 수보하는자, 다시 세우는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겁니다.

혹시 내 삶속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겁니다.

내 삶속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재건축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특별히 느헤미야의 이야기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할겁니다.

혹시나 무너졌습니까?

혹시 무너진 부분이 내 생활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사람 느헤미아의 얘기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새롭게 재건축을 위해서는, 재건축 전문가의 조언과 힌트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 느헤미야가 바로 재건축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로부터 우리가 조언을 듣게 된다면 우리 삶속에 무너진 영역, 한 부분들을 다시 세우는데 큰 힌트를 얻게 될겁니다,

교회학교 초등부 교사로서 행복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인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학교 초등부 교사를 하게되면 2년마다 성경 전부를 한번씩 공부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중에서 수많은 사건들과 그 사건의 주인공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2년동안 그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되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울고 웃고 또 기쁘고 환희에 차고 감동과 감격 때로는 실패 때로는 좌절감들 그리고 너무나 비교했을때 너무나 초라하고 작은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참 귀한 시간이예요.

여러분들이 2년을 통과하면서 여전히 내 삶속에 어떤 변화된 영역들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여러분 2년동안 헛것 배운 거예요.

우리는 2년의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먼저 가르치기전에 배우는 심정으로 항상 배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울수록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배움을 소중히 여기는 2년의 시간들을 항상 허락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부 교사로서 행복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매 2년마다 한번씩 통과한다는 것이요 매 2년마다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으세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행복 해야 합니다.

성경은 명령의 말씀이 많이 있죠.

범사에 감사해도 좋다. 범사에 감사하면 좋을걸 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합니다.

평강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평강합니까 라가 아닙니다.

성경은 평강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평강해야 합니다.

평강하지 않은 일에대해 우리가 평안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는 것은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귀기울여 본다면 우리 역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면서 수많은 교훈을 얻게 될겁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살펴보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 느헤미야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일으키고 왕성하게 세력을 얻어서 키워줄사람., 흥왕케 할 사람, 느헤미야 라고 이야기 합니다.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평가를 받을수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일꺼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흥하게 할사람인가 망케 할 사람인가.

나는 내가 속한 그 직장에서, 그 직장을 흥하게 할사람인가망하게 할사람인가.

내가 속한 단체, 내가 속한 그 어떤 조직에 내가 이 무리들을 흥왕케 할사람인가, 망하게 할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쯤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쯤은 물어봐야 될것같아요..

너는 정말로 키울 사람인가 키워진 것을 무너뜨릴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쯤은 물어야 될것 같습니다

다.

또 2장 1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직업이 표현이 되어있죠. 1장 11절과 2장 1절이죠.

자, 1장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귀울이사 종의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 멋진 표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한느 종들

우리 초등부 교사들이 하나님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는 종들이라 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면 이보다더 명예스러운 일이 어딴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
니다.

11.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1.아닥사스다왕 이십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자, 술잔 받드는 일을 했던 술관원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에이 그거 뭐 별것 있나요,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이 직
업에 대해서 이 지위위치에 대해서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않습니다. 위신과 영모가 난무하는 고대 시대에서 술잔 하나면 정권을
교체할수 있었어요.

밥도 필요 없어요. 밥은 반찬도 있어야 되고 복잡하자나요.

그러나 술잔이면 술잔 딱 하나로 정권이 교체되요.

그러니 이 술말은 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가장 최측근, 왕의 모사 책사가 될 수 있었던 제일 가까운 신뢰받는 사람만이 이 술관원이 될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될수 있었던 그런 자리가 아니예요.

우리는 이 술관원의 위치까지 오른 느헤미야에 대해서도 한번 상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의 출신 성분은 성골이나 진골이 아니예요.

6두품도 아닙니다.

천민 출신, 망한 나라 , 망국민이었습니다.

출신 성분으로 하면 sky 대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아주 비천한 출신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참으로 탁월한 능력과 지혜로 바로 이 위치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런 느헤미야 였어요.

무엇하나 부족할것이 없는 최고의 정부의 고위관리직이었죠.

그냥 자기의 망한 조국에대해서 관심을 끄고 일시의 안일과 영달을 위해서 살더라도, 그것을 추구하더라도 그냥 아무 부족한거 없었던 사람이였어요.

그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쓸것을 위해서 그저 살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런 느헤미야 였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바로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듣게되고 바로 그 백성들의 형편을 듣게 되죠.

바로 그 과정에서 성벽의 재건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가 언제부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시작했는지를 들여다볼수가 있어요.

1장부터입니다. 그는 그 형편을 관심을 가지고 살필줄 아는 그 순간부터 예루살렘 성 재건에 들어간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무너진 영역을 세울려고 할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되는지를 들여다보게하는 대목이에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2.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자신의 형편을 살피는것 시대의 형편을 살피는 것 , 백성들 민족들의 형편을 살피는 것은 재건축의 시작입니다.

형편을 살필려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일어나는 마음이 아니예요.

정말 관심과 사랑이 없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거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형편을 살펴야 될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주변의 형편을 살펴야 될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형편을 살피면서 성벽 재건에 느헤미야가 투신했다는 것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꼼꼼히 나부터

우리 자신의 형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딴는지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무슨일을 했는지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있느냐. 그말을 지금 네가 어디위에 서있느냐, 너의 입장은 무엇이나. 너는 지금 현재 어떤 처지에 있느냐 라고물으시는 대목입니다.

바로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벌거벗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저는 입었지만 벗었습니다. 제가 만든 옷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는 사실. 저는 벗었습니다. 저는 입었지만 벗었습니다.

라는 자기 형편을 정확하게 알았을때 그에게는 옷이 입혀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입고 있다면 하나님은 덧입힐수가 없어요.

우리가 허영의 옷, 우리가 봉사를 했던 봉사의 타이틀이라는 옷을 입고, 내가 특별한 존재인양 하나님앞에 설려고 한다면 그것은 무흠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입혀줄수가 없어요. 벗어야 합니다.

벗고 다시 입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형편을 가장 잘 파악한 대답이었습니다.

벗은줄 모르는 사람은 입을수가 없어요.

우린 우리의 자신의 형편이 어떠한지 먼저 분명히 살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에 있어서 우리의 형편은 무엇인가.

또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형편은 무엇인가.

내 동료 교사들의 형편은 무엇인가.

또 내가 맡은 분반 아이들의 형편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필줄 알아야 합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또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형편을 꼼꼼히 제가 살피고 또 살피야 될텐데 제 힘과 여력으로
는 참 어렵고 불가능한게 또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바쁜것 같고 항상 무엇인가 쫓기는것 같고 그렇게 달려가는 듯한 느낌
이 많이 듭니다.

또 올해는 교구도 또 2개나 있어가지고 그걸 함께하면서 또 부서 초등부를
함께 하다 보니까 대단히 여러분들의 형편을 살필만한 그런 여력이 없음을
알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초등부의 현재 위치는 어디일까.

우리 선생님들의 현재 형편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다시한번 우리 교사들의 형편, 우리 초등부의 현재
그 위치, 그것을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엘서 보겠습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요, 요엘서 , 구약성경 1272쪽, 호세
아 다음에 요엘 있죠? 요엘서 1장 16절 부탁드립니다.

16.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17.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으로다

18.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풀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예 양떼도 피곤하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운데 우리가 양으로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아주 피곤합니다. 또 식물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먹고사는 그 문제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피곤한 양떼들이 있을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해야될 일들 때문에 쫓기는거, 뵈가 수고해서 뿌렸것만, 땅속에서 썩어버리는 거뵈드릴 것이 없는 그런 형편도 분명히 우리 중에는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피곤한 양떼의 형편을 살펴볼줄 아는 우리가 되야 된다고 성경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축의 시작은 양떼의 형편을 살펴보는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겨진 양떼들이 있습니다.

형편을 알뿐만 아니라, 또한 아이들의 형편을 들여다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피곤해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우리는 곰곰이 그 아이들의 형편을 들여다볼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될겁니다.

느헤미야는 형편을 살핀 후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형편을 살핀 다음에 그가 했던 일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부터입니다.

3.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4.내가 이 말을 듣고 자 여기서부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나와있는데요 형편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일이 무엇이였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듣고 그다음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는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가 단 짧은 시간에 어떤 우리가 기도부탁이나 간증을 듣고난 다음에 그때 한번 두 번 해주는 기도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되요.

그는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시간에 한번하고 끝난 문제가 아니었다는것을 우리는 들여다봐야되요. d

이게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왕 제 이십년 기슬르월에

라고 되있어요, 이 기슬르월에 이 사건 이 형편을 처음 듣게 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2장 1절을 보세요 아닥사스다왕 이십년 니산월에 라고 되어있습니다.

기슬르월부터 니산월까지는 약 4개월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느헤미야의 기도는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기도가 단시간 내에 한번하고 이루어진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되요.

그는 약 4개월동안, 그 형편을 들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수색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과연 나는 나의 기도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할수 있는 그런 기도이였는가, 기도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요.

재건축의 두 번째의 시작이 바로 이러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제 과연 기도하고 있을까, 정말 기도할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쯤 던져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가 단발성기도 , 일회성 기도로 그치고 있는지 어떤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고 돌아봐야 할겁니다.

결코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요, 바로 이 시작은 기도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는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6.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7.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그는 자신이 모든 죄를 지은것처럼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이 그 모든 죄의 원인인 것처럼 나와 내 집이 모든 죄의 원상인것처럼 생각하고 먼저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나와 내 집이.

내 아비집이, 이렇게 기도했단느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건축은 바로 우리 자신의 회개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나 자신의 회개, 내가 속한 집안의 회개 I .

누군가를 탓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범죄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회개하는데에서 건축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있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할것 같습니다.

나만 하나님앞에서 깨끗하고 내 생활만 하나님앞에 제대로 하면 된다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주변의 형편들이 곧 내 형편이 되고 , 내 주변의 범죄가 곧 내범죄가 되면서 그것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뒷받침 되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아픈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고, 그들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었을때, 때론 그들의 범죄가 내 범죄가 되어서, 정말로 아팠을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기도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다가갈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합니다.

과연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것이 가능 할까요.

솔직히 생각해서 정말 이렇게 될까요

나와 내 집돌아보는 것도 벅차고 급급한데, 과연 느헤미야처럼 이런 기도가 정말로 나올수 있을까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아니죠. 느헤미야와 우리 자신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아 그렇게 해야죠. 그게 바람직하겠네요 라고 생각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인물들과 우리 자신의 차이점이에요.

느헤미야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야됩니다.

그의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정말로 나는 할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겨우 나와 내 집을 위해 , 나와 피를 나눈 가족들에 한계를 두고 그정도 까지는 할수 있겠는데,

정말 민족들의 죄, 백성들의 죄를 앞에두고 자기죄인것 처럼 받아들이고 회개할수 있을까요.

내 형제자매들의 정말 그 형편을 내 형편처럼 받아들이고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할수 있을까요.

그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예요.

저는 느헤미야가 이것이 가능하게 된것은 딱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실줄 모르겠지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에 대한 사랑, 백성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 그에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도가 가능했을 거라고 믿어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사랑을 바탕으로 둔 전도를 하고 계십니까.

정말 사랑을 바탕으로 둔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봤을때, 과연 사랑이 바탕으로 된 봉사, 사랑이 바탕으로 된 교사모임, 사랑이 바탕으로 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물어야 될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있는 것이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이요, 잠시 잠깐이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항상 있는 세가지가 있는 것을 아세요.

이 세상에 항상있는 세가지가 있어요.

모든 것은 변하고 항상 있을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있는 세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제가 야채 크래커하나 사드릴테니까.

항상있는 세가지.

예 믿음 소망 사랑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잠깐 한번 몰래요.

13장 13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있는거 세가지 .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상에 어떤것도 항상 있을수 없어요, 그런데 항상 있는 세가지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묻지 않을수가 없어요.

세상은 변해요, 그리고 사람조차 변합니다.

이 우주는 변해요, 그러나 변치 않는 세가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이요 우리의사랑입니다. W

이것을 대체할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항상 있는 세가지, 우리는 이것을 우리
에게 항상 물어야 해요.

이 항상 있는 세가지가 나에게도 항상 있는가, 이걸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 t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중에 제일인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에 바탕에
있었기에, 그 사랑에 바탕위에 믿음과 소망이 건축된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세상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소망중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항상 있을 세가지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ㅇ이라.

내가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됩니다.

사람은 사랑 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외 태어 났을까.

내가 왜 살아갈까,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사랑 받기 위해서 .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랑 받지 못하는 데서,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어딘가 아픈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잘 안됐을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발생해요.

어디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사랑을 어디서 찾을 건데요.

풀같이 될 사람에게서 찾을 겁니까. 변할 사람에게서 찾을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변하지않는 3가지.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변치 않는게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정말로 이러한 기도가 안되요.

우리는 곰곰이 내가 어디서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어디서 사랑을 찾아야 할까 라는 걸 생각해봐야 됩니다. 제가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항상 차고다니던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잃었는지, 학년 공과가서 잃었는지 , 상담하다 잃었는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잃은지도 모르고잃어버렸구나.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내가 모르고 잃어버렸습니다.

제 예를 시킵니다. 찾아주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게 잃어버렸어요,

혹시 사랑이이렇게 잃어지지는 않을까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게 잃어버린 사랑.

그래서 내 삶이 무미 건조해지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 살아갈 이유가 자꾸 흔들리고 도대체 왜 사냐 라는 질문이 생기고. 잃어버린지도 모르게 잃어버린 그사랑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 찾으셔야 합니다. 어디서 찾으실 겁니까.

예수님이 답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아요 | .

이 우주의 모든답은 예수님이예요.

인간의 모든 고통의 답은 예수님이예요.

내 슬픔과 눈물 내 기쁨과 즐거움의 모든 답은 예수님이예요 |

여러분 예수님 목상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내 사랑을 거기서 다시 찾아내야 되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겁니다.

그다음 느헤미야 1장에 8절을 보시면요, 그의 기도의 근거가 말씀에 근거했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1장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흠을 것이요

9.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찌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아의 기도의 근거가 예언된 믿음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말씀에 근거했을때 그 기도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근거한거예요.

신명기 30장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집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올리겠습니다.

- 1.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하므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 2.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 3.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흠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 4.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찌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와, 돌아오면 이렇게 꼭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있으니 혹시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힘을내라 라고 말씀이 이어져요.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앞에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일차적으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고, 또한 20세기 중반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또한 극적인 성취가 됩니다.

말씀은 이중적 성취, 다중적 성취라 그러죠.

한번에 성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취되면서 이뤄지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오해하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던 그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느헤미야 2장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드디어 니사월에 왕앞에서 술을 올리게 됩니다.

술관원으로서 술에 독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통하고 또한 왕에게 그 술을 올리는 데 바로 왕의 앞에서 수색이 보여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왕과 나라고 제목을 붙혀요.

여러분 왕과나라는 영화도 있었죠, 있었을꺼예요 예전에 본거 같아.

참 멋진 제목이죠 왕과나, 지금 느헤미야가 왕과나, 왕의 앞에서 왕과 나 사이에 그가 무엇을 구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왕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제물이나 자기 자신의 성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왕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앞에서 . 참 멋진 부분이죠.

이 사람 앞에서 1장 11절을 보시면 그 중반 절 보면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고 되어있죠, 이 사람은 왕앞이죠.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럼 누구의 은혜니까,

사람의 단순한 은혜니까, 아니요.

사람의 은혜를 주장하시는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 사람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였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파악한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형편을 파악했죠.

형편을 파악하고 앉아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리고 자신의죄인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듯이 기도했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안된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 1차 2차 귀환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성은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버린 거예요.

이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줄도 끊어지고 의지하던 사람도 끊어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많은 것이 무너져 버릴지라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해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 열두해 혈루병 앓았던 여자

많은 의원에게 많은 재물을 허비했으나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 불쌍한 여자,
그 불쌍한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한방울의 은혜였어요.

혈루병 앓는 여자를 고치러 가시는 길이 아니었어요.

가시는 길에 겨우 뒤에서 옷자락만 닿으면 낫겠다.

하나님의 옷자락에서 떨어진 한방울의 은혜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한방울의 은혜, 여분의 은혜, 그 잉여의 은혜 나머지의 은혜 한방울이 이 혈루병 앓았던 이 여자에겐 전부였어요.

제게 필요한 것은은혜입니다.

그 은혜 한방울만 제게 떨어뜨려 주십시오.

스로보닉? 의 여인은 개도 그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제게 당신의은혜 한 조각만 떨어뜨려 주십시오.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은혜예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져야
되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과 소망 사랑 항상 있을 세가지로 살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가지더 덧붙여지는 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

여러분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되었습니까.

그 나머지의 은혜예요. 여분의 은혜, 그 한방울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선생님이니까 특별한 존댓니까, 우리가 특별히 잘사는 존댓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떨어진 단 한방울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었던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교사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지금도 은혜입니다.

여전히 은혜예요. 우리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 삶속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참으로 배운 망덕한 사람이 되어있을 겁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이 우리는 되어있을꺼예요.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앞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겁니다.

느헤미야서를 모두다 살펴 볼수는 없어요.

참 위대한 성경입니다. 참 느헤미야가 이 자리에 나타난다면 어떤 얼굴일까.

저는 참 궁금했어요. 저는 어제 눈을 감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

게 참 궁금했습니다.

정말 근엄하게 생겼을까.

무시무시하게 생겼을까. 일처리하는거 보면 장난이 아니던데. 꿈쩍도 못할거 같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인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정말 그 다니엘 앞에 내가 딱 선다면,

아 앉아 있기도 힘들지도 모르겠다. 황송해서.

모세 앞에 선다면, 다윗왕앞에 선다면, 정말 어떻게 내가 앉아있을수 있을까.

말이라도 하나 붙여볼수 있을까.

그런데 나는 지금 느헤미야를 전하고 있네. 기가막힌 일이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참 위대한 발자취들입니다. 그런데 , 바로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

바로 그들을 세우셨던 예수님.

그분앞에 선다면. 과연 어떨까. 바로 그분이 내 친구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친구라고 하는데,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을지라도

정말 만족하고 충분한 상태일텐데, 내가 그분의 친구라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의 위치가, 허락받은 위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위치인지 우리는 곰곰이 정말로 받아들여야 될겁니다.

그냥 아무생각없이 습관처럼 , 우리가 이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내가 한사람의 신앙인으로써,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사로서 이 자리에 앉게 된건, 은혜위의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의 성벽의 재건은 바로 이 은혜를 구하는데서 실질적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준비했고, 그리고은혜를 구하는데서 기도와함께 실질적인 재건이 작동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장에 이어지는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일이 되어졌다는 것을 낱말이 표현하는 사실입니다.

8절. 보십시오.

2장 8절 중반절, 아니 후반절 정도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한겁니다. 라고 성경 느헤미아는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왕의 도움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왕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심이 작동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1절부터 쪽 이어지는 대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읽어보세요. 제가 개괄적으로 각 부분들만 집어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이어지는 대목은 지도자로서 느헤미야가 꼼꼼하게 현장을 살피고 둘러보고 그리고는 날을 잡아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힘과 용기와 마음을 주는데서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17절 한번 보세요. 조용히 그 앞에서는 현장에 가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묵도하는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다시 수치 받지 말자 라고 그들의 마음을 끌어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해쥬요.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18절중)

d궁정에서 어떤일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쥬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렇게 마음에 힘과 용기를 주는 일에서 실질적인 건축작업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축 작업이 이루어 진겁니다.

우리는 그 준비 단계에서, 그가 벽돌을 준비하기전, 마음을 준비했고, 기도

를 준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무형의 벽돌들이예요.

바로 그것들을 먼저 느헤미아가 준비했다는 것에 우리가 참 신앙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의 과정속에서 반드시 비웃음과 방해를 감안해야 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어요 .

19절에 보면 바로 그들이 우리를 업신 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나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이런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때 바로 담대하고 확신에 찬 대답이 나왔어요.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정확한 결단력과 분별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재의 왕ㅇ, 땅의 왕에 허락을 받고 우리가 서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한 아주 단호하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단느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비웃음과 업신여김과 멸시가 있을 지라도 담대함과 용기로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과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늘의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때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있어요.

우린 그걸 가지고 통과하는겁니다.

또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죠. 3장 5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부
치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역사 , 그 역사에 그 귀족들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있었죠. 또있었죠. 4장 한번 봐보세요. 4장 10절.

(잘못읽으시다 정정하심)

10.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흠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
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예, 유다사람들이 또 방해합니다. 드보아 귀족들이 방해했죠.

이제 유대 사람들도 아 우린 못할꺼야 라고 힘을 빼는 얘기들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의 역사에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담대함으로 , 낙심하지않고 낙담하지않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의 건축, 우리 삶의 재건축을 할때에도 분
명히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을거라는 거예요.

그거 해봤자 되겠죠. 작심삼일, 또 졸면서, 자면서 있을кен데,

몇일이나 갈려고, 그래도 다시 해야되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니까.

작심삼일이면 삼일마다 하면 될꺼 아닙니까.

신앙인이 완벽한 사람이 신○앙인입니까.

완벽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아요, 실패하고 실수 했을때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우린 모든 것에 완벽할수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린 넘어졌을때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시 해야 되요. 괜찮습니다.

괜찮어요. 실패해도 괜찮어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다시 하면되요. 다시 일어서서 오늘다시, 또 다시 다시하는 겁니다.

서울의 모 교회 올해 2012년 슬로건 다시입니다. 딱 두음절, 다시입니다. 다시하자, 다시하면 되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지라도 다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참으로 마음을 드려서 해야 될겁니다.

4장 6절 보십시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중요한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들여서 역사하는일 바로 이것이 필요한단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린 마음에서 시작하고 마음에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알 리가 했던 말이있죠. 무하마드 알리.

복서의 주먹은 체육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서의 주먹을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비전 꿈희망 용기 라는 그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이들이 이 건축에 성공했던것은 이들이마음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봉사할 때, 또 가르칠때 정말 우리의마음이 어디에 가있는냐를 이것부터 항상 묻고 찾아야 할겁니다.

중요한건 마음이에요.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것부터 확인해야 할겁니다.

마음을 들어 역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살펴볼수 없지만요, 다 .

4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와서 막 공격하고 험박하고 죽일거라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낙심케하고 낙담케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때 4장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지켜야될 가장 소중한 가치들, 너의 아내와 너희 자녀들과 너희 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소중한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내야 되요.

참으로 귀한 가치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낼수 있는 싸움, 영적인전쟁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와, 그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가족 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아시죠.

4장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8.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20절

20너희가 무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21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22그 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찌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23.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좇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으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그들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역사에 마음을 들어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충성이 뭘니까, 마음 가운데, 마음가운데 가 아닙니까.

마음의 그 중심에 가운데 그게 충성 충자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들어서 그들은 역사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국 결과는 6장 15절입니다.

성 역사가 오십 이일만에 엘룰월 이십 오일에 끝나매

16.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앎이니라

결론은 느헤미야는 이렇게 적습니다. 이 역사는 내가 한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참으로 멋진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겁니다. 예 성벽을 재건한 것은 느헤미야가 아니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제목도 바뀌어야 될지 몰라요, 성벽을 재건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들어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궁극적으로 느헤미야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 느헤미야의 성벽의 재건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의해서 이뤄졌다는 사실, 우리는

또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예수님 오실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겁니다. 오신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그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 질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자들이예요. 그 믿음과 소망을 있게 한것 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이 항상 있을 세가지를 품과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내가 품어야 될것이 무엇인가, 믿음을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또한번 느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 놀라운 책임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단 한시간에 어떻게 다 알수 가 있겠습니까.

느헤미를 상상하고 생각해보면서 그에게 말을걸고 그에게 응답을 들으 면서 또다시 질문해 갈면서 우리는 많은 신앙의 교훈을 얻어야 되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 앞에서 무너진 마음이 dLT다면, 내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다시 재건축 해야 될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할겁니

다.

내 무너진 삶을 재건하라.

너의 무너진 삶의 부분〇, 그 영역을 재건축하라, 바로 그 조언을 우리는 바로 느헤미야에게서배워야 할겁니다.

-기도

사랑이 많으신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헛된 하루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